

# 휠체어 타고 무대로... '살아보니 관참은 세상이더라'

### 실로암사람들, 12월 5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무료 공연 중증 장애인 6명 유니버스극화...장애인극단·전자바이올린 협연

승부욕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일용', 휠체어 이용자들의 일상적 삶에 대해 고민하는 '영준'. 휠체어를 끌고 열연하는 장애인 배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씩 펼쳐지는 가족, 친구, 꿈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보면 이 세상도 꽤나 관참은 곳임을 실감하게 한다.

(사)실로암사람들이 '살아보니 관참은 세상이더라'를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공연장(2층)에서 연다.

연극팀 하나된 소리가 선보이는 제32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이야기' 일환으로, 장애인 생활기를 생생하게 극화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희망 등을 동시에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연은 중증 장애인 6인이 살아오며 겪은 실제 에피소드를 조망화한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운동쟁이 일용,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애쓰는 소라, 꿈과 현실을 생각하는 대왕, 평범한 삶을 모색하는 영준, 자립하면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승규, 첫 보금자리에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경한의 이야기 등이 그것.

"1인 3역을 맡으면서 방대한 대본을 숙지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장애인의 마음은 당사자인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주연과 조연을 겸하면서 삶의 고충을 최대한 극에 녹이는데 집중했죠. 이번 무대가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장애·비장애인 이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공연에 출연 예정인 배영준 씨의 말이다. 그는 이전에도 독립영화 '똥 싸는 소리', 연극 '사랑의 온도' 등에서 연기했던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리허설 등 전 과정이 녹록치 않았고, 매년 장애인으로서 무대에 오르는 것부터 '하늘의 별 따기'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자 "출연배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기에,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무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경써야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 씨는 특히 "가족에 얽힌 아픔 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그래도 비슷한 고통을 겪은 여섯 명이 의기투합하기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허설 대본지를 들여다 보니 "할 수 있지?"라는 대사에 유독 굵은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고단한 현실에 놓인 장애인 배우들이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또한 자신을 격려하는 질문으로 다가왔다.

여섯 편의 에피소드는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된다. 즉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들의 현실'을 유니버스극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기획은 김모세, 연출은 황민형이 맡았다. 장애인극단 그레도, 공연장작소 아라리언이 출연할 예정이다. 강명진은 전자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을 위한 탕고'와 '내사랑 내곁에', '마법의 성' 등 익숙한 곡들을 연주한다. 이외 실로암수어증창단이 잔나비 곡 '슬픔이여 안녕',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를 수어를 통해 들려준다.

하나된소리 김모세 기획자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기를 모티브로 한 공연이 장애인은 물론 타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며 "공연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관객들이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로암사람들에서 주최하는 '하나된소리'는 문화예술로 장애인 인권,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끌어낸다는 가치를 내걸고 펼쳐왔다. 1990년 초연한 이래 지금까지 총 31회에 걸쳐 공연했다.

무료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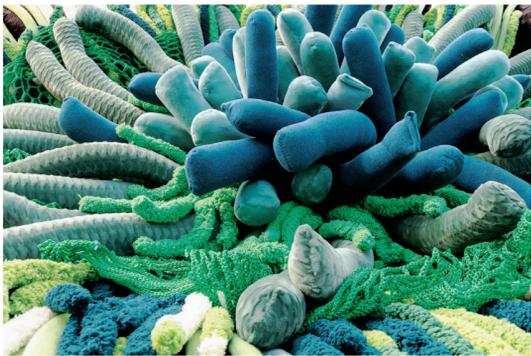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중증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펼치는 공연 '살아보니 관참은 세상이더라' (하나된소리 제공)



리허설을 진행하는 최승규(왼쪽부터), 배영준, 박일용, 김소라, 박경한, 박대왕 배우.



조은술 작 '우리는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나왔다'



서영실 작 '언제나 현재'

## 서영실·실라스퐁·조은술...

###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레지던시 결과 발표전 12월 6일까지

남구 양림동은 구한말 선교사들이 정착해 광주 근대화를 일군 지역이다. 당시 선교사들의 의료와 선교, 교육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선교사들이 조성한 언더우드 사택을 개조한 공간이다.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시민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매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의 레지던시 결과 발표 단체전이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입주한 작가는 모두 3명. 서영실, 실라스퐁, 조은술 작가는 삶의 배경이나 예술 세계는 다르지만 저마다 이색적이며 실험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먼저 서영실 작가는 도시 변화와 맞물린 사람들과 시간에 초점을 맞췄다. '언제나 현재'를 주제로 사라져가는 물성을 깊이 있게 풀어낸다. 작가는 창

작성 입주 후 주변 공사장 소리를 채집해 시각화했다. 커췌이 물감을 쏟아올린 뒤 조각도로 깎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감을 평판으로 제작한 것.

작품 '언제나 현재'는 환상적이면서도 동화적이다. 부산물이 발현하는 이미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서 작가는 "태초에 모든 것이 흙에서 생산돼 소멸하듯 흙으로 쌓아 올려진 제단 위에 노동의 부산물이 생성되고 소멸해가고 있다"며 "작품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삶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었다"고 밝혔다.

홍콩 출신의 실라스퐁은 이번 단체전에서 퍼포먼스 작품 '빵소리' (Bread Whispers)를 선보인다. 그는 빵을 굽는 퍼포먼스를 매개로 음식을 나눔으로써 맛볼 수 있는 따뜻한,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음식 나눔이 친구, 예술, 변화로 전이되는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생명 공동체의 존재양식에 대해 고민하는 전시도 있다.

조은술 작가는 '공유 서식지-임구멍'이라는 주제에서 '공동체 없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기존의 개념을 해체한 생명 공동체의 존재양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정불변한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각기 다른 존재들의 모습을 조망화한다. 가시 없는 선인장 같기도 하고, 해져 생물 같기도 한 작품 속 개체들은 금방이라도 화면을 벗어나 현실 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생성한다.

조 작가는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공동체를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며 "끊임없는 성장과 타자를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아님을 인지할 때 새로운 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등현대미술관 사회적 약자 관람 환경 개선

### '디지털 전시관람 지원 사업' 선정...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설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전시관람 환경 조성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터치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통한 Led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은 올해 '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전시관람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달 말까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부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각 10개, 총 20개관을 지원했으며, 지역에서는 무등현대미술관이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2대, Led 패널을 설치했다. 전자는 미술관 소개, 전시 영상,

소장품 검색, 후기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AI 모션캡처 카메라를 탑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인식하며, 영상 관람에 있어 시선의 위치에 따른 불편 해소에도 초점을 뒀다.

미디어디스플레이로 소장품 콘텐츠를 제공하는 Led 패널은 다국어 언어 번역이 가능하다. 작품 설명, 자막 수화 영상을 제공하며 소장품 128점을 5색선으로 나눠 총 25분 자동 재생된다.

정승규 관장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연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을 토대로 전시 관람 환경 조성에 앞장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판소리감상회 공연 장면.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 평론가 해설로 듣는 심청가

### 광주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29일 광주공연마루

심청의 효심을 다룬 판소리 '심청가'의 서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창극적 요소와 디테일한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 평론가의 해설을 곁들여 풍부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시립창극단의 2023년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그것. 오는 29일 오후 3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윤중강 국악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공연은 보성소리 강산제 조상현류 심청가 중 '형성 잔치 올라가는 대목'부터 '심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동남 쪽으로 자란 심청은 15세에 부친의 눈을 뜨게 하려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판다. 이후 옥황상제 도움으로 되살아나 맹인 잔치를 열고 부녀가 상봉한다.

공연은 심청가 강산제 조상현류 장봉무로 부를 예정이다. 강산제는 남성이 흐느껴 우는 처절한 목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박유전, 정재근, 정응민, 조상현류 순으로 이어져 왔다.

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 대표 주소연 명창이 들려주며 복제는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이 잡는다.

해설을 맡은 윤중강 국악평론가는 서울대 국악과, 일본 도쿄에대 대학원 음악 연구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1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하면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은 "이번 감상회는 창극적 요소 등이 가미된 내용을 현장에서 해설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판소리 감상회"를 매개로 우리 소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곡의 왕' 슈베르트 알현하다

###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V'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슈베르트의 교향곡과 피아노 오중주곡 '송어'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2023 오티움 콘서트 V-Schubert's'를 오는 29일 총 2회(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의 대표작이 올려 퍼질 예정이다. 슈베르트가 20세가 되던 해인 1817년에 작곡한 가곡 '피아노 오중주 A장조 송어 D.667'가 바로 그것.

이어 '교향곡 5번 B플랫장조 D.485'도 감상할 수 있다. 교향곡 4번에 이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곡이지만, 다른 곡들보다 선명하고 간단한 음악이다. 물론 이를 연주하기 위해 작곡자와 연주자가 숙련된 작곡·연주 기법을 갖춰야 하는 것이 감상의 포인트.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영언이 지휘를 맡는

다. 독일 카셀소재 카셀국립대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건국대, 경원대, 목원대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다. 한양대 음대,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를 졸업한 이수연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향 제2바이올린 수석 단원이자 광주신포니에타 악장.

이외 비올라라는 한예종을 졸업하고 광주시향 비올라 수석 단원이던 엄광용이 연주한다. 첼리스트 이후성은 광주시향 첼로 차석이자 독일 하노버국립음대 석사 등을 졸업했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작곡 실력이 틀이 잡혔다고 평가받는 두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아름다운 스트링 악기들과 건반악기의 멜로디를 감상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석 2만 원, S석 1만 원.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